

오피니언

월/요/광/장

고현석



연초 서울대학교 장수과학최고지도자 과정의 일본 연수에 참가하여 이로도리를 견학하는 행운을 얻었다. 이로도리는 후쿠시마 현의 카미카츠 정에 있는 회사이다. 대다수가 철순 노인인 산골마을이오리장식용 나뭇잎을 팔아 아주 잘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신문과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된 바 있는데, 그 중심 고리가 이로도리다. 그리고 이로도리의 중심에는 요코이시 토모리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 젊은 나이에 카미카츠 농협의 영농지도원으로 부임하여 오늘의 이로도리를 일궈낸 장본인이다. 그가 지은 '기적의 나뭇잎 이로도리'가 지난해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국내에서 출판된 바 있다.

의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방법, 고품격자들이 상품 생산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상품배송. 그래서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마을을 방문했다던가? 요코이시 사장은 현재에서 의료보험을 가장 적게 쓰는 카미카츠, 고품격에 역할이 있는 카미카츠가 고품격 사회로 치닫는 일본의 노인복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의 특색하고 고유한 자산을 찾아 상품화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진정한 인간적 복지가 실현된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였다.

이로도리에서의 질의 응답

미카츠, 고품격에 역할이 있는 카미카츠가 고품격 사회로 치닫는 일본의 노인복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의 특색하고 고유한 자산을 찾아 상품화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진정한 인간적 복지가 실현된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였다.

미카츠, 고품격에 역할이 있는 카미카츠가 고품격 사회로 치닫는 일본의 노인복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의 특색하고 고유한 자산을 찾아 상품화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진정한 인간적 복지가 실현된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였다.

미 인력자원이 고갈되어버려서 불이 붙질 않습니다." 다른 일행들에게는 필자의 질문이나 사장의 답변이나 범상했었지만, 그의 답변은 필자의 마음속에 남모르는 큰 파문을 일으켰었다. 비록 고유한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요코이시 사장과 같은 불쏘시개 가 어디나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컴퓨터로 주문에 응하고 물품을 처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리를 깨닫는다 하더라도 현실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터이다. 이

처럼 뻔해 보이는 답변을 스스로 해보았었는데, 실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도 아주 강한 어조로 인력의 고갈을 지적한 단 말인가? 필자에게도 일본 농촌의 현상이 직작은 가는 터였지만, 요코이시 사장의 어쩌면 자조적으로 내뱉는 듯한 답변에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농촌에는 이미 불쏘시개는 물론이고 쓰시게로 불을 붙여도 탈 장작마저도 없다는 한탄으로 느껴지면서, 더 이상 질문할 엄두를 못 낸 채 순간적으로 곡성군의 여러 얼굴들이 뇌리를 스쳤다. 농업경영인들, 청년회원들, 청년회의소 회원들, 젊은 학부모들, 여러 여성단체 회원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무척이나 애

고 있다. 여기에 출세한 자녀들의 권유를 마다하고 고향을 지키며 사는 지역사회의 어른들. 어쩌면 일본의 농촌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훨씬 나은 것 같다.

아직은 나은 듯싶은데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이들이 돌아가시고 떠나가기 전에 어떻게든 활력이 넘치는 농촌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할 터인데 하는 안타까움,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국민의 뜻을 모으면, 요코이시 사장이 꿈꾸는 고품격사회의 인간적 복지, 나이 들어도 늘 역할이 있어서 당당한 노인복지를 우리나라가 먼저 실현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과 소망이 범벅이 되었다.

지난달에 이로도리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내각부·지역사회고용창조사업의 실시주체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해 왔다. 그 가운데 '후쿠시마의 지역소재와 사람의 가교가 되다'라는 요코이시 사장의 강연 제목이 특히 눈에 띄었다. 일본 농촌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지역자원과 주민의 가교가 될 사람을 양성하고자 무던히도 애쓰는 그의 열정이 읽혀졌다. 21세기 고품격사회의 진정한 인간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농촌개발이라는 자부심이 그의 열정을 계속 불태우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찬사를 보내면서, 필자 자신의 열정을 다그쳤다.

(전 곡성군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비엔날레 이제 정체성을 고민할 때다

현대미술의 축제 '2010 광주비엔날레'가 6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7일 막을 내렸다. 지난 9월3일 개막한 광주비엔날레는 31개국 134명의 작가가 참여해 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시립미술관, 양동시장 등 광주시내 곳곳에서 현대미술의 향연을 펼쳤다.

마지막일리아노 지오니 감독은 고은 시인의 연작시 '만인보(10,000Lives)'를 주제로 현대사회와 이미지, 삶과 이미지의 관계를 조명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비스 큐리거 총감독과 프랑스 리옹미술관 티에리 라스파이관장 등 해외 명사들이 대거 찾았으며 르몽드와 아사히신문 등 해외 언론들이 대거 찾아와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입장에서 비엔날레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먼저 이번 행사에서도 '광주'는 철저히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지역작가 발굴 및

문화를 통해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실은 거두지 못하고 일부 미술전문가들의 '집안잔치'로 끝났다는 것이다.

또 세계미술계에 새로운 미적 담론을 던지고, 현대미술을 이끌 스타작가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출품작 대부분이 세계 각국에서 이미 전시됐던 구작(舊作)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뒤늦게 출발한 부산비엔날레가 매회 광주보다 2배나 많은 80만~13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는 배경과 이유도 따져볼 일이다.

이제 광주비엔날레 창설 15년을 넘긴 시점에서 그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8회에 이르기까지 비엔날레의 외형만 키우다 보니 이제는 '광주'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우리의 행사가 아닌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일침을 아픈게 새겨야 할 것이다. 광주만의 메시지와 성격을 찾고, 이를 세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게 핵심이 아닌가.

장휘국 새 광주교육감에 대한 바람과 기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광주교육의 새 수장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광주교육에 적잖은 변화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교육자인 장 교육감은 이미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태다.

장 교육감은 "무한 경쟁교육과 차별을 심화하는 특권교육을 반대하고 모두를 위한 상생교육, 협력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학생 간 경쟁을 지양하고 주입식 교육보다 창의적인 전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진보교육 철학을 지역교육에 접목하겠다는 복안인 듯하다.

이런 장 교육감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한 편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광주교육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급진적인 정책 시도로 지역교육의 안정·지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치우칠 경우 지역 학교와 학생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우리는 장 교육감이 지나치게 이념에 몰두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동안 임시위주·교당중심의 학교현장, 고질적인 교육비리, 전교조와 교총 소속 교사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등으로 점철된 지역교육은 분명히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진보'나 '보수'나 하며 교육현장을 편 가르고, 지역학생이 진보교육의 실험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광주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추락하는 사태만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지나친 성직경쟁도 문제지만 무조건적인 하향식 평준화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이 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진보와 보수교육 이념을 아우르는 소통의 교육감, 교사·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감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無等鼓

2008년 9월 14일 미국의 투자금융회사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집값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후폭풍이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공황을 불러왔고 세계 경제를 일시에 위기에 빠뜨렸다.

대환란을 수습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형태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기존 G7에 한국,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을 더해 경제규모가 큰 20개 나라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 국제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G20(Group of 20) 정상회의의 시발이다.

선진 국가간 협의가 구는 이처럼 세계 경제의 고비 때마다 새롭게 짜여졌다.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와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1975년 11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경제국이 중심이 된 G6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이 탄생했고, 1997년 러시아가 가세해 G8이 되었다.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휩쓸고 나서는 선진국과 신흥국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9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만들어졌다.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서울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G7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첫 회의이고,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G20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위기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위기를 초래한 투기자본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새롭게 짜여졌다.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와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1975년 11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경제국이 중심이 된 G6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이 탄생했고, 1997년 러시아가 가세해 G8이 되었다.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휩쓸고 나서는 선진국과 신흥국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9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만들어졌다.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서울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G7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첫 회의이고,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G20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위기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위기를 초래한 투기자본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새롭게 짜여졌다.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와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1975년 11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경제국이 중심이 된 G6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이 탄생했고, 1997년 러시아가 가세해 G8이 되었다.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휩쓸고 나서는 선진국과 신흥국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9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만들어졌다.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서울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G7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첫 회의이고,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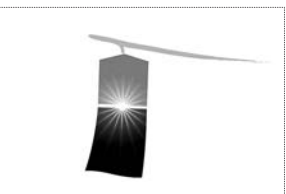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

법조칼럼 김혜민. Article about legal issues and the justice system.

기고 오장원. Article about mountain culture and environmental issues.

아직 더위의 끝물이 빠지지 않은 어느 날, 외로운 한 명이 9시30분에 있을 행사사건 선고를 듣기 위해 일찍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나는 그분께 반갑게 인사를 드렸지만, 조금 후에 알게 될 선고결과에 대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마음 한 구석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으로,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법리구성을 위해 적잖이 고민했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사건이었다.

니께 그 나무에 대해 여쭙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 나무는 일명 백일홍나무라고 하는데 백일홍 꽃이 세 번 피고 지면 버 버 배기를 할 때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나무껍질이 없고 반달반달해서 접 접지 않은 나무라고 정원수로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다. 남들이야 접 접지 않은 나무라고 한들, 그 순간 나는 엉뚱하게도 백일홍나무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껍질도 없이 그저 연약해 보이는 나무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뜨거운 여름 땀별 아래에서도 세 번이나 꽃을 피우는 백일홍나무.

백일홍 같은 변호사 되고 싶다

선고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이 사건을 대하면서 품었던 조심스러운 기대감은 맥없이 사라졌고, 어느덧 나는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의뢰인과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자'며 내 자신을 다독여가고 있었다.

가끔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님께서 너무 어리신 것 같은데....."라고 말끝을 흐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린 여자 변호사로서의 취약함이 더 말해봤자 무었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만큼 비록 어리지만 차곡차곡 내실을 쌓아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는 했다. 그런 다짐이 최근 '백일홍 나무 같은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보다 미적진 표현으로 바뀐 셈이다.

그 때 사무장님께서 삼기된 표정으로 내 방에 들어오셔서 "변호사님, 000씨 무죄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막 변호사의 길을 걷는 새내기로서 의뢰인의 노고함이 더 녹듯이 사라지는 듯 했다. 곧이어 의뢰인도 다시 사무실로 찾아와 거듭 감사인사를 하셨다.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힘이 나고 기쁠 수가 없었다.

최근 형사사건의 좋은 결과는 어쩌면 백일홍나무와 같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되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고마운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난 주말, 어머니와 함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를 봤다. 예전부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소담스러운 꽃송이와 연약해보이면서도 힘있게 굽어치는 가지 뼈대가 참 멋들어진 나무라고 생각했기에, 옆에 계신 어머니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까.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쏠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라고 시인이 노래했듯이 나 역시 여름의 끝에서, 백일홍 같은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지역문화 발전 주춧돌 사립박물관 지원책 서둘러야

박물관은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국·공립박물관과 함께 사립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216곳의 사립박물관 중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립박물관은 규모는 작지만 설립자가 오랫동안 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수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국·공립박물관이 못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유·무형 문화재를 보관하면서 지역적 특색을 대변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풀뿌리 박물관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의 소중한 지역문화의 거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역문화를 중요하게 하는 문화적 거점인 사립박물관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속히 지원책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할 것이다. <권순도·광주시 남구 입춘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